

# 가사의 향유방식과 현대적 변용문제

-경북의 현대 내방가사를 중심으로-

이정옥\*\*

<차례>

1. 서론
2. 현대내방가사와 자료 개관
3. 향유방식의 변화
4. 유통 및 발화 양상의 변화
5. 결론

## 1. 서론

학계에서는 가사를 “중세 후기를 거쳐 이행기 및 개화기까지 관통해 내려온 우리의 대표적인 고전시가 장르”<sup>1)</sup>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과거완료형

\* 본 논문은 2007년 9월 14일 한국가사문학관 주최 제8회 전국가사문학제 학술대회 “가사문학의 특성과 현대화 방향”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 발표 당시 지정토론을 해주신 한남대 박요순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박교수의 토론에서 지적한 호남의 내방가사 작가와 작품은 논외로 함을 밝혀둔다.

\*\* 위덕대학교

1) 조세형(1998),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쪽.

의 문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방가사에 관한 한 가사는 조선 후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경북지방에서는 강한 전승력으로 가지고 창작, 필사, 낭송, 유통되는 전통을 이어왔다. 또한 9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향유방식으로 부활하여 고전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학으로서의 내방가사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문화나 여성축제의 아이템으로 기능하는 내방가사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화하게 되는 내방가사의 문학적 표현양상과 향유방식의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는 작년 한국가사문학관 개관 7주년 기념 제8회 전국가사문학제 학술대회에서 정한 “가사문학의 특성과 현대화 방향”이라는 학술 주제의 시의 적절성을 지지하면서, 현재 왕성하게 창작, 발간, 향유되고 있는 경북의 내방가사의 현장을 중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향유방식을 점검하여 내방가사의 현대적 변용, 나아가 내방가사의 바람직한 미래에 고민해 보고자 한다.

## 2. 현대내방가사와 자료 개관

### 2.1 조선 후기, 그 이후의 내방가사의 흔적

필자는 권영철(1979)의 “규방가사<sup>1)</sup>”에 수록된 기행가류 가사의 창작시기를 살펴본 바가 있다.<sup>2)</sup> 그 결과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편의 기행

2) 내방가사는 창작-필사의 유통 특성상 정확한 창작시기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으나 기행가류의 경우, 기행일시의 기록이 있어 비교적 창작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 많다. 이정옥(2000),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여행경험과 사회화”, 『경주문화논총』 제3집,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가사 중 ‘부여노정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제강점기부터 1960-70년대까지의 작품이었다. 내방가사의 창작의 전통이 20세기 후반에도 꾸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자료집을 내방가사 연구의 전범적 자료로 채택한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내방가사를 조선시기의 문학으로만 인정하여 연구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목	창작시기
원별탄	1937년(정축)
유왕류람가	1954년(갑오)
영남루가	52-54년간
금광유람가	일제시대
부여노정기	1815년이전
계묘년여행기	1963년(계묘)
사형제완유가	1962년(임인)
청양산수가	60년대
슈곡가라	1927년(정묘)
유람기록가	1964년(갑진)
여행기	1970년(경술)
경주유람가	60-70년대
노정기라	1973년(계축)
금오산치미정유람가	1928년(무진)
청양산유람가	일제이후
유람가	1965년(을사)

<표1>

여기서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현대 이전의 어느 시기까지 창작되었던 이른바 ‘전통적 내방가사’와 ‘현대내방가사’의 구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시기의 구분이 중요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일

수 있는가? 또 개념의 정의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1971년 은촌 조애영이 ‘은촌내방가사집’에서 처음 사용한 ‘현대내방가사’라는 명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3)</sup> 시인 조지훈의 고모인 조애영은 시조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1930년부터 40여 년간 쓴 자작 내방가사를 현대내방가사문학이라 명명하며 “현대여성, 현대부녀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자기 감정 표현의 문학으로 계승, 전승”하여야 할 것이며, 내방가사문학의 재생을 위하여 ‘현대내방가사 작품집’을 발행했으며, 내방가사의 부흥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후학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당부하기도 한다.<sup>4)</sup>

## 2.2 현대내방가사 자료 개관

20세기 말, 경상북도에서는 향토문화의 발굴 및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각 시군이나 문화원에서는 내방가사 자료집을 발간하여왔다. 1988년 영천시에서 발간한 “규방가사집”에는 총 51편의 내방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1995년 봉화문화원에서 발간한 “우리 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에 수록된 가사는 권선희총가와 기타가사로 분류하여 총 44편을 수록하고 있다. 같은 해 안동문화원에서는 “안동의 가사”를 발간하였고<sup>5)</sup> 1986년과 1995년 이대준 편, “낭송가사집 1,2”를 간행한 바가 있었다. 2000년, 경상북도에서는

3) 조애영(1971), 『내방가사 의미와 자서』, 『회갑기념은촌내방가사집』, 금강출판사, 13쪽.

4) 그런 의미에서 조애영은 소고당 고단을 내방가사의 제자로 키우기도 하였다. 소고당 고단은 호남 장흥(長興)에서 태어나 익산으로 출가해서 현재 전주 거주하며, 조선조 선조 중기 호남가단(湖南歌壇)의 한 사람인 고제봉의 후손으로, 1991년 『소고당가사집』 상하 2권을 간행하였다.

5) 이 가사집은 이대준이라는 한 호사가에 의해 발간된 자료집이다. 이대준은 ‘가사에 도취하여 문전을 섭렵하고 촌가의 내방을 찾아 다니면서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가사를 모으는 일을 필생의 업으로 삼는’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인쇄자료, 영상, 현대역, 낭송자료까지 수록된 “경북의 내방가사”CD를 발행하였다.<sup>6)</sup>

2001년 울진문화원 발간, “울진민요와 규방가사”, 경주향교 발행, “경주 고가사집”(2004) 등 경북에서는 최근까지도 내방가사 작품의 수집 및 집대성이 경북지역의 정부기관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사문학관에서도 2002년 권영철 편 “규방가사 1”을 편찬한 바 있다. 현재 가사문학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두루마리 원본 자료와 편자의 소장 자료 82편이 실려 있다.

현재 내방가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창작되거나 가전 차원의 문집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더욱 보편적이다.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가사를 창작하는 가사 작가가 등장하여 다량의 작품, 또는 작품집을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1995년 경북 칠곡의 벽진이씨 가문에서 원본자료를 복사하여 제본한 “이내말씀드리보소”가 최초로 접한 가문가사집이었다. 이를 본받아 대구시 동구 둔산동 윗골 경주최씨(1996)가에서 “내방교훈”을 원본영인하고, 한글해석한 가문세전가사의 복사본 자료집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1992년 경북 의성 영천 이씨 집성촌인 산운마을에서는 “운보가사집”을 발행하였다. 보덕가, 한별곡, 제문 등 세 종류의 가사 혹은 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필사 원본과 해석, 주석을 병기하고 있다. 비록 내방가사라고 밝혀있지는 않으나 한별곡은 내방가사가 분명하며 제문도 여성의 작품이다.

2000년 이후부터는 가사를 전공하는 전문학자에 의해 수집 정리되고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된 가사집이 대거 간행되었다. 대구 단양 우씨 월촌 종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가사들이 홍재휴 교수의 편집, 해설 및 각주를 갖춘 “월촌가사”(2001, 대구가톨릭대 출판부)로 간행되었다. 전용환 편

(2002), “운학집”(저자: 차운학, 편자의 조모)은 경남 마산에서 발행된 문중 가사집이다.

2003년 경북 경산에서 발간된 “건당 규방문학 ‘허다 겹은 다 지났스니’”(도서출판 그루) 역시 가문세전 자료집이다.

앞서 언급한 조애영과 같은 전문적 수준의 가사작가가 2000년대 대거 등장하였다. 그 중 단영 독보적인 작가로 이 휘를 꼽을 수 있다. 이 휘는 2003년 “견문취류”, “소정가사”(이회출판사)를 간행하여, 사계의 주목을 받은 후, 현재도 왕성하게 가사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창작 유통되고 있는 내방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동의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회장 이선자)에서는 내방가사경창(낭송)대회를 개최하여 내방가사의 창작과 향유의 저변확대 및 전국적 관심 및 보급에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는 내방가사가 안동을 중심으로 현재도 온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거나 소멸의 위기에 처함을 안타깝게 여긴 이선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이다. 사회단체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회장 이선자)는 1997년 본회를 창립하여 제1회 내방가사 경창대회를 개최한 이래, 2008년 6월까지 총 13회의 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안동민속제나, 1998년, 2000년, 2002년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내방가사의 전통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다. 또한 총 13권의 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을 발간해내기도 하였다.<sup>7)</sup>

『영남의 내방가사』는 이전의 내방가사자료집과 차별화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총 수록작품은 145편이다. 1권에는 교훈가편 20편, 구국편 23편, 자탄

6) 이정옥의 연구에 의해 간행된 최초의 멀티미디어물이다.

7) 『영남의 내방가사』 1, 2(도서출판 한빛, 2002).

가편 24편 등 67편이 수록되어 있다. 2권에는 화전가편 15편, 경축가편 5편, 여행 기행문 9편, 세덕가편 7편, 이별가편 9편, 열녀편 및 추절가 14편, 서간지 6편, 제문 13편 등 모두 8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가문 차원에서 세전되어 오던 장롱 속의 두루마리 형태의 가사를 현대문법에 맞추어 재기록한 것이나 최근 창작된 가사들이 많다.<sup>8)</sup> 또한 상장이나 위장, 사돈지 등의 서간지나 제문 등이 각기 따로 분류되어 수록된 것은 여성적 글쓰기의 영역이 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향유자들 스스로가 인식하였다는 점, 그것들이 내방가사와는 다른 양식의 글쓰기라는 점과 그들의 글쓰기 영역이 생활문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인식한 차원의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 자료집의 145편의 작품에는 자료 제공자의 택호를 포함한 실명과 주소가 모두 명시되어 있다. 어떤 작품은 소장자나 작자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까지도 상세히 기록하여 두고 있다. 이전의 내방가사 자료집이 내방가사를 연구하는 학자나 호사가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의해 제작된 반면에 이 자료집은 작품 소장자가 자료집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명 작가가 흔치 않은 내방가사의 원작자나 전승 경로 및 향수의 전통을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자료집이라 할 것이다.

내방가사전승보존회는 현재 약 15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주로 안동을 중심으로 봉화, 영양, 청송, 포항을 주된 생활 근거지로 하되, 서울과 대구 등의 대도시에도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sup>9)</sup>

8) 이선자 회장에 의하면 매년 참가희망자들이 많아져 예심을 거쳐 발표자를 선발하게 되며, 또한 5회 이후부터는 가사 창작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작 작품 위주로 발표자를 선정하는 추세라고 한다.

9) 이 단체에서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가사를 율독하고 낭송하는 모임을 가지며, 또한 그 과정에서 수준 높은 창작 작품이 소개되기도 한다.

1.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수록된 내방가사를 통하여 그 시대 안방 부녀자들의 삶의 모습인 기쁨과 애환, 풍자와 해학, 교훈 등의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반추되기를 기대합니다.(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발간사)

2. 안동지방은 사대부 집안이 많고 내방가사가 성하였던 곳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안동처럼 내방가사를 지금까지 짓고 노래하는 곳이 없는데 유일하게 안동은 옛날 모습 그대로 부녀자들이 가사를 지어 노래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격려사)

3. 내방가사를 계승하고 오늘날의 정서를 맞추어 발전시키는 모임인 내방가사 보존회는 그래서 안동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단체이며...(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축사)

### 3. 향유방식의 변화: 자기서사의 기록: 내방가사 작가의 창작 및 출판

#### 3.1 전통시대 자기서사와 내방가사

이야기가 있고 화자가 있는 모든 문학 텍스트를 서사(敍事)라고 한다면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텍스트를 일단 '자기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지 않다면 '자기서사'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사실 자체와 글로 씌어진 사실은 별개의 것이다. 글로 씌어진 것은 작자에 의해 주장되고 구성된 사실일 뿐, 사실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자신과 관련이 있기는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관한 사실보다 외적 세계에 관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 진술은 본격적인 자기서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기행 유람(회전, 유람가)이나 혹은 작자가 견문한 사건에

관한 기록은 자기서사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진술일 따름이다. 또한 자기자신에 관한 사실을 진술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상태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자기서사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서정시도 자기서사라고 하기 어렵다.

‘자기자신’에 관한 사실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갖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기서사는 자신의 일생이나 혹은 특정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서 고찰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컨대, ‘자기서사’란 화자가 자기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는 단일한 장르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오늘날의 자서전은 ‘자기서사’의 대표적 유형이다<sup>10)</sup>

이처럼 전통시대 한국남성의 자기서사가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문제삼거나 혹은 공적이고도 사회적인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아래의 전통시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와의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조선의 여성은 남녀유별(남녀유별)의 유교적 성별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히 가족 내적 존재로 규정되었으며, 가족이나 친족공동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은 궁녀, 기녀, 의녀, 무녀 등 특수계층 여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여성에 글읽기와 글쓰기는 권장되지 않았다.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 여성의 글읽기와 글쓰기는 그다지 장려되지 않은 것이 보편적 상황이었다. 조선시대의 ‘말/글’ 관계에서 글은 기본적으로 남성성별화

된 매체였다.

이덕무는 여성이 한글소설을 읽거나 한글로 번역된 가곡을 익히는 것을 반대 하였다. 하지만 “비록 부인이라도 또한 훈민정음의 상생상변(相生相變)하는 이치를 밝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말하고 편지하는 것이 촌스럽고 비루하여 격식을 갖추 수 없다”고 하거나 “언문편지를 쓸 때는, 말은 반드시 분명하고 간략하게 하고, 글지는 반드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하여 여성들의 한글 편지만큼은 그 실제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편지와 같은 실용문을 통해 한글 글쓰기를 일상화한 여성들은 점차 가사나 소설을 창작하기에 이르렀으며, 편지나 가사를 자기서사의 글쓰기로 전용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의 여성들은 특정 장르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의 구어-즉 말하기-에 바탕하여 자기서사의 글쓰기를 하였다.

내방가사는 자기서사의 글쓰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바, 수많은 평범한 여성들이 내방가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서술하고 성찰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평민여성들은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의 한글 글쓰기는 확산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글은 그것이 자족적인 글쓰기인가 소통을 전제로 한 글쓰기인가, 사적인 독자를 상대로 쓰는가,

공적인 독자를 상대로 쓰는가에 따라 성격과 의미가 판이해지게 된다. ‘글의 유통상황’이 텍스트의 의미형성에 직접 관여하게 마련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글씨나 글이 가족 범위 밖에 공적인 세계, 이른바 ‘외간(外間)’에 전해지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허난설헌이 자신이 쓴 글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유언을 했다는 기록이라든가, 혹은 혜경궁 홍씨가 궁중에 들어온 후 친정과의 편지왕래가 빈번했으나, 친정아버지의 명에 따라 편지를 모두 물로 씻어 버려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한 기록, 그리고 앞서 이덕무의 언급이나 『내훈』의 후부인에 대한 언급에서도 이러한 인식

10) 박혜숙 외(2002),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제7호, 327~328면. 이하 ‘자기서사’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도 본 논문에서 재인용하였다.

11) 박혜숙 외(2002), 위의 글, 330~333쪽.

을 엿볼 수 있다. 여성이 쓴 글은 대개 가족이나 친족 내에서나, 공동체나 지역범위의 여성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 더구나 여성 자신이나 가족의 실제 사실과 직접 관련된 기록은 가족공간 밖으로의 유통이 금기시되었다. 가장 널리 유통되었으리라 추측되는 것은 내방가사 형식의 자기서사이다. 내방가사는 주로 여성들의 혼인을 통해 한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전이되었지만 대개는 지역 공동체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유통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자기서사는 창작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창작되었다 해도 제한적으로만 유통되었다. 요컨대 조선시대 여성 자기서사의 텍스트는 가족적인 글쓰기이거나 혹은 사적인 소통을 위한 글쓰기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작자-독자 관계도 남성적 상황이나 근대적 상황과는 사뭇 달랐다. 남성의 자기서사는 작자의 문집에 수록되어 유통되거나 정식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반면 여성들의 자기서사는 모두 필사본으로 되어있으며, 유통범위도 상대적으로 협소하였다. 전통시대 남성의 자기서사는 공식적인 문집을 매개로 유통되었기에 그 독자의 성별 및 계층에 제한 없이 무한히 개방된 작가-독자 관계가 전제된 것이었다. 반면 전통시대의 여성이 익명의 다중(多衆)을 상대로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독자는 실제 작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를 알려면 알 수도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요컨대 전통시대 여성 자기서사의 일반적인 작자-독자 관계는 성별, 계층, 지역에 있어 제한적이고 비개방적인 것이었으며, 그런 만큼 공적 성격이 미약하였다.

조선후기 여성작가가 상정한 자기서사의 독자는 대체로 자기 자신, 가족, 여성 일반으로 나누어진다. 독자가 자신인 경우는 글쓰기 자체에만 의미를 두었을 뿐, 아예 그 어떤 독자도 상정하지 않은 가족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가족인 경우는 자식·형제·시집식구·후손 등에게 자신의 과거사 등을 알리기 위해 쓴 것으로 사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요컨대 여성의 자기서사는 전통적인 글쓰기 형식인 내방가사를 통해 이루어지곤 했다. 조선 후기에 다량 창작 유통된 내방가사는 그 문학적 완성도에 있어 내부적 편차가 크긴 하지만,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평범한 여성들이 대대적으로 글쓰기를 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내방가사 중에서도 특히 신변탄식가류 내방가사는 여성의 자기서사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 3.2 격동기 역사 속의 여성 : 은촌 조애영의 일생사

은촌 조애영(1911-2001)은 내방가사의 역사적 전승에서 20세기의 전통적 가사정신을 계승한 인물이다. 경북 영양군 일월면 두들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글로 쓴 내방가사를 글씨 연습 삼아 익혔다고 했다. 한문과 한글, 자수와 길쌈 등을 배우고, 가문의 여성교육 지침서인 '소녀필지'를 통해 가학을 배운다. 1922년 영양읍 공립보통학교에 편입 신학문을 접하고 17세에 서울에 유학, 배화여고에 재학 중 작문시간에 가사를 써 당선할 정도의 문장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회갑기념은촌내방가사집』에는 총 19편의 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자작내방가사의 종류와 해설'을 간단히 하고 있어 감상에 도움을 준다. 그의 가사에서는 20세기 초, 경북 양반가의 여성으로 태어나 일제강점기 신식교육을 받고, 서울로 출가하여 한평생을 살아온 경북 양반가의 여성의 일생을 엿볼 수 있다.

① 내방가사 습작기 : 구한말 영남 반촌 풍속을 그린 화진가, 베짜는 새색시의 노래인 직녀가, 어머니의 결혼생활을 그린 어머니의 노래, 애련가는 모두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창작한 가사이다.

② 그리운 고향의 노래 : 한양조씨 일문의 조상 내력과 일월산에서 향일

12) 박혜숙 외(2002), 위의 글, 333~340쪽.

투쟁을 한 조상들의 고향의 전설을 산촌향가와 일월산가로 노래했다.

③ 일제하의 투사적 학교생활 : 광주학생운동의 주동자가 되어 고초를 받으며 학교생활을 한 사연을 울분가로 졸업여행의 기행을 적은 금강산기행가를 통해 집안의 투사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이력을 보인다.

④ 서러운 시집살이, 한국여성의 비애 : 신혼가와 귀거래가를 통해 시집살이의 고통과 부부갈등의 원인이기도 했던 일제시 부호자제 남성들의 여성관 등을 고발하기도 한다.

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 구한말부터 시작된 조국의 비극, 이승만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패상, 대통령의 실권, 4.19 학생의거로 이어지는 역사적 현실을 장편 가사인 한양비가, 학생의거 혁명가에서 고발한다. 육여사 환영회가는 5.16 혁명에 대한 여성의 기대를 적은 노래다.

⑥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 동창생을 생각하며 지은 사우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지도자적 삶을 살면서 지은 한국남녀토론회가, 골동애무가, 소비층지도가에서 사회지도층의 여성으로서 면모를 보인다.

⑦ 40년만의 귀향, 그리고 지난 삶의 회고 : 귀향가, 고서화찬미가, 수연가

### 3.3 호남가단의 맥을 잇는 가사 작가 : 소고당 고단

“그의 가풍(家風)을 살펴보면 영남 내방가사의 낭영조(朗詠調)와는 다른 점이 발견된다. 예컨대 남성들이 작자로서 참여한 계녀가사(誡女歌辭)를 제외하고 종래의 내방가사는 대개 ‘어와 세상 벗님네야 이 내말삼 들어보소’ 하는 식의 반복(反復) 아니면, 호환 즉, 친구든 세상 사람이든, 대상을 불러서 호응을 구하는 식의 민요조적 기구(起句)를 이 작가는 별로 쓰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 소재나 주제(主題)에 있어서도 고향의 사시풍경(四時風景)을 읊은 애향가라든가 자라난 고향산천을 그리워하는 망향가(望鄉歌)(이 점은 은촌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은 것을 내방가사라기보다는 소위 조선조 양반가사라 일컬어지는 남성들의 일반 ‘가사’에 가깝다. 더욱이 고단의

작품의 경우, 30년을 아껴쓰던 바가지를 깨뜨리고서 놀랍고 애처로워 하는 회한(悔恨)에 찬 여심을 읊은 가사는 현대판 조침문(弔針文)이라 할까, 다만 산문이 아니고 4.4조의 운문이란 사실이 다를 뿐이다.”<sup>13)</sup>

### 3.4 내방가사 전통의 창조적 계승 : 소정 이휘의 창작 열정

- ① 가전본 필사 자료의 정리: 건문취류(전 속편 6책 13권) 원본(수고본)과 인쇄본(2003) 가사 38편, 제문과 위장 28편, 편지글 90편 등 총 176편
- ② 8년간의 창작가사집 소정가사 7책의 수고본과 인쇄본(2003), 현재 14책 발간
- ③ 多작의 작가 : 올해년(1995년)부터 을유년(2005년)까지 총 85편
- ④ 인간과 자연, 역사에 대한 다양하고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한문 구사 능력
- ⑤ 전통 계승에 대한 소명의식: 가례가사 집필
- ⑥ 일상적 소재의 문학적 형상화 : 가족, 꽃, 여행의 경험 등
- ⑦ 희필의 경지 : 가사수문록

고리산하	그리워서	일곱색의	체흥가며
금낭난곡	회혼경축가	감회록등	십책이요
옛기억	상기하여	관혼상제	가례사례
갑신지원	그려내니	십일책이	되었으며
신춘정월	설풍속에	청초하게	피어나는
진보라색	물망초가	기이하여	답아보고
화신삼월	느닷없이	춘설이	대설되니
설경은	장관이나	농사피해	속출하니

13) 김용숙, 「조선조 여인의 삶과 생각」.

농부들의	장우단탄	천재인가	인재인가
감당하기	어려움을	춘설가에	실었으며
서울생활	첫걸음에	온화하신	현명보살님
형주처럼	의지하고	다정히도	지냈건만
회자정리	인간세상	인생살이	정리인듯
격재천리	상별한후	수십년을	그린마음
홀연이	어느날자	화려한	호접란을
고운우의	차곡차곡	소담하게	보내시니
황홀담담	즐거움에	화답하니	원별가요
.....중략.....			
넓은바다	푸른물이	하늘로	치솟으니
인간들의	오만함에	조차주의	노염인가
암담한	벽채상전	그러내니	창상가라
구주지방	벉부의	온천지대	구경하고
후꾸오까	하카다등	대충대충	돌아보니<소정가사 12책 서문 중에서>

#### 4. 유통 및 발화 양상의 변화 : 공적 발화의 이벤트

박혜숙은 “여성의 글이 대개 가족이나 친족 내에서 유통되었으며, 기껏해야 공동체나 지역범위의 여성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는 여성문학의 유통 경로와 상황을 상정하면서 “조선시대 여성 자기서사 텍스트는 자족적인 글쓰기이거나 혹은 사적인 소통을 위한 글쓰기였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이 익명의 다중을 상대로 글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일반적인 작자-독자 관계는 성별, 계층, 지역에 있어 제한적이고 비개방적이었으며, 그런 만큼 공적 성격이 미약하였다”<sup>14)</sup>고 규정한 바 있다.

14) 박혜숙 외,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문학연구』 제7호, 2002, 338~339쪽.

사적 관계망을 통해서 가족이나 지역범위에서 유통된 이전의 가사들과는 달리 ‘경창대회’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공적으로 발화된, 이를테면 ‘발화의 현장성’을 거친 작품이라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이전까지는 종래의 사적 유통을 거쳐 가전되어 오던 작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작품들이라도 ‘경창대회’에서 다중을 상대로 한 공식적이고도 공개적 낭송의 단계를 반드시 한 번 이상 거친 후에야 이 자료집에 게재되었다. ‘경창대회’는 개별적 화자(낭송자)가, 대부분 여성인 다중의 청중<sup>15)</sup>을 상대로, 청중석보다는 높은 무대에서 마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 발표자(혹은 낭송자)가 준비한 두루마리 형태의 가사를 제한된 시간만큼 낭송하는 발표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sup>16)</sup>,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시상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 경우 경창대회 현장은 ‘화자-청자’간의 결속성과 친밀도가 극대화되며, 가사 내용에 대한 인식이 긴밀히 형성되고 현격히 고양되는 공간<sup>17)</sup>이라는 점에서 예전의 사적 유통망과는 상당히 다른 유통양상을 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사의 ‘작자-독자’ 관계는 ‘화자-청자’ 또는 ‘개인-다중의 청중’이라는 관계로, 따라서 ‘개인-개인’ 관계보다는 ‘개인-다중’의 관계로 그 관계의 변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sup>18)</sup> 그리하여 내방가사라는 특정문학양식에 대한 숭배 내지 신성호가 형성되어 그들의 전통적 문학 행위에 대한 자긍심은 점점 강화되어왔다.<sup>19)</sup>

15) 청중들 중에는 간혹 남성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여성들이며, 또한 노인들이다.

16) 약 3-5분 정도 낭송할 시간이 주어지며, 청중들의 호응도에 따라 시간이 증감하기도 한다. 전 작품을 다 낭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낭송자와 청중들은 그것을 매우 이취워한다. 낭송자는 일차 예심을 거쳐 선정되며, 미리 낭송할 가사에 대해 숙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읽는 낭송자보다 외어 낭송하는 낭송자가 훨씬 많으며, 후자에 대한 청중의 지지와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17) 청중들도 낭송자와 같이 낭송되는 가사 내용에 대단히 몰입하는 태도를 보이며, 때로 감동적인 내용에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낭송 틈틈이 ‘좋다!’라는 등의 추임새를 넣어 낭송자를 격려하는 경우도 많다.

18) 물론 이전의 가사 전승경로가 이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는 않다. 이정옥은 내방가사의 전승체계를 필사와 낭송의 이중체계로 파악하고, 필사는 개인적 전승, 낭송은 집단적 전승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 연구, 1992,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 이정옥, 「여성의 전통지향성과 현실경험의 문제-최근작 내방가사에 대한 보고-



이와 같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가사 낭송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사 유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경창대회’는 내방가사의 예술방식을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경창대회’를 통해서 폐쇄적·사적 관에서 필사나 낭송의 방법으로 유통되던 내방가사가 개방적·공적 관계로 유통의 방식이 변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결정적인 예술방식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 변화의 양상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청자호명’ 예술방식이다. ‘청자호명’ 예술방식은 가사의 양식적 결구방식인 서사에 관습적으로 상용되는 예술방식이었다. 전통적으로 가사는 전체 구조로서 서사·본사·결사의 구분과 그 결구방식을 충실히 지킨다.<sup>20)</sup> 형식과 내용의 자유로움 속에서도 양식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가사의 특성은 이 서사·본사·결사의 결구방식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내방가사의 경우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내방가사는 다층적 어조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양식적 특성 때문에 그 예술방식에 대한 고찰이 ‘예술 형식’, ‘말하기 형식’, ‘글쓰기 방식’ 등과 같이 그 용어를 달리하는 다양한 고찰의 관심이 되었다.

#### 가. 사적 유통(작자-필사자/낭송자-독자/청자) → 공적 발화(화자-청자)로 변화

안동에서는 ‘내방가사전승보존회’라는 사회단체까지 결성되어 내방가사 창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내방가사낭송대회’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내방가사 향수와 유통에 새롭고도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글하기’로서의 내방가사는 창작과 향유방식과 독서행위까지 포함한다. 내

방가사의 창작(생산)-일차적 전승(유통)-이차적 전승(소비)의 경로는 내방가사의 전승 확대-팽창법칙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확장, 팽창, 변전의 형태가 내방가사 경창대회로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글 밖에서 글 속의 화자를 들여다보고, 글 속의 화자는 글 밖의 향유자들을 의식한다. 독자(청자)의 믿음 안에서 내방가사는 쓰이고 읽혀지는 확산과 번짐의 역사를 계속한다. 그들의 ‘글하기’는 계속된다. ‘글하기’의 확장과 팽창의 힘이 확산과 번짐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경창대회라는 이벤트는 작자-독자의 관계보다 화자-청자의 관계가 결속성과 친밀도가 극대화되며, 공유의 인식을 고양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내방가사라는 특정문학양식에 대한 숭배 내지 신성화가 형성되어 그들의 전통적 문학행위에 대한 자긍심은 강화되었다.

현대내방가사의 주요한 특징은 ‘호명’과 ‘공동체 지향의식’으로 요약된다. 최근작 내방가사가 ‘호명’의 문법을 큰 예외없이 채택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존재성의 확인절차이며, 이것은 화자(작자)의 정체성을 가문의식에서 찾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한 그들의 의식체계는 전통적 가족 해체의 위기의식에서 발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래의 목적이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며, 전달할 분명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상황과 목적적 행위는 동일하다. 행위의 진정성은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지향하는 바에 있다면 내방가사의 향유자들은 무엇을 지향하기 위하여 ‘청자호명’의 의식을 제의적 절차로 택하였는가.

호명은 일차적으로 가사의 독자, 혹은 청자를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경창대회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 다중을 상대로 노래하듯 가사를 낭송한다면 청자환기의 문법장치는 매우 합목적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호명은 가사의 유통, 향유 범위를 지정하면서 가사 창작의 목적과 동기를 암시하기도 한다. 이때 객체를 호명하는 텍스트의 예술문법은 실재하는 존재를 대상

여성자기서사체의 새로운 인식, 한국여성문학학회 제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2, 36쪽.

20) 이정옥, 『내방가사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13쪽.

화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창대회’라는 행사차례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절차를 요구한다. 그 형식적 절차에 최적으로 부합하는 구술상황을 인지한 작자(혹은 낭송자)의 문학적 변용이 ‘청자호명’ 언술방식으로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청자호명’ 언술은 표면적으로 청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나, 이면적으로는 통과제의적 절차의 문학적 관습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문학적 구조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5. 결론 : 가사의 새로운 전승을 위하여

1971년 은촌 조애영의 “은촌내방가사집”에서 처음 ‘현대내방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학계에서는 그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학계에 축적된 대부분의 내방가사 관련 연구물들은 가사자료들이 조선시대의 자료라는 것을 별로 의심해보지도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가사, 혹은 내방가사에 관한 한 과거완료형의 고전문학의 범주에서만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되었던 바와 같이 내방가사는 엄혹한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시기를 거쳐, 경제발전과 정보화 혁명을 이룩해낸 21세기 현재까지도 강한 전승력을 가지고 향유되어왔다. 또한 9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향유방식으로 부활하여 고전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학으로서의 내방가사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문화나 여성축제의 아이টে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내방가사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방가사의 문학적 표현양상과 향유방식은 불가피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내방가사는 더 이상 과거완료형의 문학이 아니라 현재형 내지는 현재진행형의 문학이다. 물론 지역적으로도 경북 일부 지역에서만 향유되고 있고,

향유 연령층 또한 대부분 고령자 여성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계와 지방정부의 가사 창작 및 문화적 연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유자들의 긍지높은 향유의식에 힘입어 새로운 가사부흥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 권정은, 「여성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 길진숙, 「〈명도자탄가〉의 내면의시과 자탄적 술회」, 『규방가사의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김수경, 「창작과 전승 양상으로 살펴 본〈쌍벽가〉」,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박연호, 『가사문학 장르론』, 도서출판 다운샘, 2003.
- 박은경, 「여성가사의 갈등 해소와 그 의미」,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8.
- 박헌호, 「30년대 전통지향적 소설의미적 특징 연구」, 『다문화 시대의국어국문학연구』, 제44회 전국국어국문학 학술대회발표집, 2001.
- 박혜숙 외,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문학연구』 제7호, 2002.
-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서영숙, 『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손대현, 「화전가의구조와 유형」,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안동대학교박물관,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용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2000.
- 양지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여성한국사학회연구회편, 『여성과 한국사회』, 1998.

- 유정선, 「〈금행일기〉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이동찬, 『가사문학의 현실인식과 서사적 형상』, 세종출판사, 2002.
- 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92.
- 이정옥, 「병와 이형상의 생지시 분석」, 『어문총론』 32호, 1998.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 이정옥,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여행경험과 사회화」, 『경주문화논총』 제3집,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0.
- 이정옥, 「현재성의 내방가사」, 『국제고려학』 제7호, 국제고려학회, 2001.
- 이정옥, 「내방가사 향유자의 문명인식과 표출양상」, 『문명의 만남 : 공존인가, 충돌인가』, 현상과 인식 제26권 4호 통권 88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2.
- 이정옥, 「내방가사의 '청자호명'의 기능과 사회적 의미-영남의 내방가사를 중심으로-」, 『어문학』 78호, 한국어문학회, 2002.
- 이정옥, 「여성의 전통지향성과 현실 경험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 이 환,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문학과지성사, 1999.
- 임재욱, 「가사 형태와 향유방식 변화와 관련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 장성진, 「개화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전미경, 「개화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일상에 대한 여성의 시각-계몽 시각과 '다름'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1, 한국가족학회, 2002, 근간.
- 정혜원, 『한국 고전시가의 내면미학』, 신수문화사, 2001.
-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000.
-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8.
- 최미화, 『여성 100년』, 홍일포럼, 2000.
-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1999.
- 최혜실, 「신여성의 고백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제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태학사, 1999.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1999.
-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0.

〈투고일 : 2008. 6. 30. 심사일 : 2008. 7. 17. 심사완료일 : 2008. 8. 12.〉

〈Abstract〉

## Enjoyment method and modern transfiguration problem of Naebang-Gasa

-focusing current Naebang-Gasa of Gyeongsangbuk-do-

Lee, Jeong-ok

1971, CHO, Ae-Yung initially from her book 'current Naebang-Gasa' Used the terminology which is, neither the what kind of interest was visible from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cademic world. Until currently the Naebang-Gasa relation research of the most which is accumulated in the academic world suspicion do not try the fact that the Naebang-Gasa data are data of Chosun Dynasty especially as is not to become accomplished, consequently Naebang-Gasa, or about the Naebang-Gasa only category of classical literature of one past perfect style the fact that has become the discussion is fact. But the sample from, like is investigated and put out the Naebang-Gasa an economic development and an informationalization revolution and even in hump one simultaneous strong point freezing, to pass by a Korean war time, accomplished a strong victory and power even until the 21st century present time had became came the enjoyment. Also 90's enters and resurrects classical literature shows in new enjoyment method and a new possibility. Namely, Gasa with from

literature lightly is a possibility of culture as item of feminine festival function of doing further the Gasa. For that literary expressive aspect and enjoyment method of the Gasa inevitably, changed.

Naebang-Gasa is not any more the literature of past perfect style knows the current style inland but literature present progressive form. Of course only the Gyeongsangbuk-do part area is becoming the enjoyment even area, enjoyment age group also most very old woman capacity does. But recently about the listening academic world and Naebang-Gasa creation and cultural research of the region government interest, and owes in the enjoyment ceremony which pride of the enjoyment people are higher and strength of the Naebang-Gasa reconstruction can be today.

**Key words** : Naebang-Gasa, current Naebang-Gasa,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njoyment method